

이세준

전시에 참여한 작가 4명 중에 김영민 작가를 제외한 3명의 작가는 이 전시 전부터 작업을 봐 온 작가들이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보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이들의 작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 혹은 변화해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되었고, (나 역시도 작업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들의 탐구 방향과 그 결과물에서 흥미로운 여러 가지 것들을 찾을 수 있었다. 조금씩은 다를 테지만 참여 작가 모두 '어떤 주제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작품 활동 초기보다 매우 많은 고민을 거듭한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런 고민의 결과물로 나온 작업은 각각의 작가별로 또렷한 방향성과 의미를 점유하고 있어서 4명 작가가 서로 어떤 대척점에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각 4명의 작가가 획득하고자 하는 위치와 의미가 서로의 작업을 충돌시키기도 하고 서로 보완해 주기도 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점이 특히 흥미롭게 느껴졌다.

한성우 작가의 경우 처음 작품 활동을 시작할 때 보였던 '풍경'의 '감각'적인 '재현'(특히 관찰을 통해 얻은 기하학적인 형태와 작가 고유의 질감과 색이 돋보였던)에서 외부 풍경의 '재현'을 과감히 내면 풍경의 '재현'으로 치환하였으며, '감각'적으로는 색을 절제하고 질감을 강화한 느낌이었다. 이런 작가의 의도를 통해 작품은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떤 하나의 (작가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완전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더듬어 찾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한성우 작가가 강렬하고 감각적인 감정을 표현적인 회화를 통해 표현한다면, 노은주 작가는 정확히 그 대척점에서 회화를 다루고 있다. 특히 붓의 움직임과 네러티브의 배치를 살펴보면 충분히 절제되어있는 정적인 감각을 드러내려 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노은주 작가는 작업의 전개과정도 한성우 작가와는 사뭇 다른데, 도시생활에서 얻어진 감각을 현대적 정물화로 환원하며 오히려 소재 특유의 질감도 얇게 필터링시켜 버린다. 그것은 어떤 개념적인 유비로 또는 알레고리로 작동하게 된다.

구민정 작가의 경우는 아예 평면이라는 매체를 앞선 두 작가와 다른 방식으로 이용한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디스플레이로 마치 유기체와 같은 구조와 시간성을 효과적으로 획득해 내며, 평면 자체의 재현적 네러티브를 모두 소거하고 가벼운 의성어와 의태어로 대변되는 감각의 충돌을 이끌어 낸다. 구민정 작가의 작업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거나 의미를 반추하는데 있다가보다는 새로운 시각언어를 탐구하고 유희적으로 미를 표현하는 것에 가깝다고 느꼈다.

무엇보다도 이 전시에서 흥미로운 동시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 작업은 김영민 작가의 출품작이었다. 자신의 낙서를 다시 컴퓨터로 트레이싱해서 출력한 이 작업은 예술 행위에 대한 비아냥 혹은 자괴로 느껴졌는데, 그런데도 그와 같은 내용을 결국 전통적인 평면 매체로 고발하는 형태로 작업을 제시한 것이, 이 작업을 더욱 자조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김영민의 작업은 앞선 세 작가가 평면이라는 매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 '발언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집중한 것에 비해 '나는 왜 발언해야 하는가'에 가까운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이 분명히 중요한 질문이고 진실된 질문임을 알지만, 그 질문의 무게에 비해 이번 작업이 다소 아쉽게 느껴진 것은 사실이다.

나는 이번 전시를 보면서 각자의 다양한 관심사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화 되는지, 그 과정

을 살필 수 있었던 것이 즐거웠다. 무언가를(특히 작가와 작업에 대해) 범주화하는 것은 좋아하는 일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작업의 성과를 반추하는 계기로 작동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은 오로지 부족한 나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쓰였기에 작가의 의도와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싶다.